

# 제6차 아시아태평양 호스피스 학술대회 개최계획서 (The 6th Asia Pacific Hospice Conference)

홍영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 학회 이사장

## 개최 배경 및 목적

1996년 싱가포르에서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으로 우리 문화에 적합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모델을 만들자는 취지 아래 시작된 아시아 태평양 학술대회의 제6차 대회(6th Asia Pacific Hospice Conference, 이하 APHC)가 2005년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웨라톤 그랜드 워커히 호텔에서 개최된다.

싱가폴, 홍콩, 대만, 일본에 이어 제6차 APHC 대회를 유치하게 된 우리나라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유일한 국제 호스피스 완화의료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제도 발전을 촉진시키고, 이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자극하며, 말기 암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국제적인 추세임을 널리 알려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함으로써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질적 양적 발전과 함께 이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 하는 한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나라들에서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발전을 도와 이 지역 안에서 말기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개최 목적을 두고 있다.

## 아시아 태평양 호스피스 학회 (Asia Pacific Hospice Palliative Care Network)

### ■ 설립 배경

이미 1992년 국제 호스피스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는 싱가포르에서 다시 개최된 1996년 대회에서,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으로 우리 문화에 적합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모델을 만들자고 약속하였다. 그 방법이 하나로 아시아태평양 호스피스 학술대회를 2-3년에 한 번씩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개최 순서는 홍콩, 타이완, 일본 등의 순서로 정하였다.

그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맞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의 활동을 소규모로 하던 중 일본의 Japan Foundation의 관계자들이 독자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호스피스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비슷한 문제들을 Asia Pacific Hospice Network 라는 명칭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 모임은 1996년 싱가포르에서 모인 각국의 대표들을 초청하는 학회로 확대 되었고, 여기서 정식 아시아 태평양 호스피스 학회의 발족을 결의하여 1998년 동경에서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여 아시아 태평양 호스피스 완화의료 학회를 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는 싱가포르, 홍콩 등과 같이 일찍이 영국의 영향을 받아 호스피스의 국가적 체제를 갖추고 발전시킨 국가들과, 호주 뉴질랜드와 같이 태평양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인종이나 문화 사회체제 경제 수준은 유럽국가 의 것을 유지하고 있어 호스피스의 전통이 깊은 국가들, 그리고 한국, 타이완, 일본 등과 같이 최근에 이를 받아 들였으나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국가들, 마지막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렵

고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이제 막 소개되기 시작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아시아태평양 지역내의 경제적 조건이 충분치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 역내의 호스피스의 수준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와 또한 이를 위하여 선진국들이 어떤 방향으로 기여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향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는 인식을 함께 한 결과였다.

2001년 대만에서 열린 제4차 APHC대회에서 'Asia Pacific Hospice Palliative Care Network' (APHN)의 창립 총회를 하였으며 이사와 회장단을 구성하여 본격적 활동에 들어갔다. 창립 시 14개 국가가 설립 회원 국가로 참여하였고, 그 중 10개 국가에서 당연 직 이사를 선임하고 선출 이사 6명, 추대 이사 4명을 포함한 20명이 이사회를 구성하였다. 한국에서는 2001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의 학술이사인 허대석 교수가 한국을 대표하는 이사가 되었고 기획이사인 홍영선 교수가 선출 이사직에 출마하여 선임된 후 2002년 동 이사로 재추대(co-option) 되었다.

■ The Asia Pacific Hospice Palliative Care Network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분야 종사자들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2001년도에 설립된 아시아태평양 호스피스 학회 (APHN)은 다음과 같은 설립 목적을 갖는다.

-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프로그램의 개발 촉진
- 완화의료 분야의 전문 교육 및 공공 교육 증진
- 관련 연구 및 협력 사업 촉진
-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 증대

■ APHC 로고



버 이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상징하는 동시에 인간의 일생을 상징.

마치 하나의 대에서 많은 낱알이 수확되듯이 현재 다양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프로그램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개발되고 있음을 의미. 황금색에 가까운 색채는 생명의 활력과 성장을 의미하며 낱알들은 미래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씨앗이 될 것을 의미한다.

■ 회원 구성

- 개인 회원 (Individual Members)
- 일반 기관 회원 (Ordinary Organisational Members)
- 연합 기관 회원 (Affiliated Organisational Members)

■ 본부 사무국

Dr. Rosalie Shaw  
 Executive Director  
 Department of Palliative Medicine, NCCS  
 11 Hospital Drive, Singapore 169610  
 Telephone: (65) 436 8233 Fax: (65) 220 7490  
 E-mail: APHN@nccs.com.sg  
 Website: http://www.APHN.org

대회 개요

■ 회의명

- 국문: 제6차 아시아태평양 호스피스 학술대회
- 영문: 6th Asia Pacific Hospice Conference (APHC 2005)

■ 기간 및 장소

- 기간: 2005년 3월 16일 (수) -19일 (토)
- 장소: 서울 웨라톤 그랜드 워커히 호텔

■ 주최

- 제6차 아시아태평양 호스피스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회
- 아시아태평양 호스피스 학회 (The Asia Pacific Hospice Network)

■ 주 관

-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 참가 예정국 및 인원

- 20개국 1,000명 (국외 400명, 국내 600명)

■ 공식 언어

- 영어 (한국어 동시통역 예정)

■ 전 시

- 기기 및 용품 전시      약 30 부스

■ 조직위원회

- 대회장                            이경식
- 부회장                            허봉렬  
    이소우  
    이원희
- 사무총장                            김준석
- 기획위원회   위원장            홍영선
- 위원    최운선
- 유양숙, 염창환
- 강경아, 김원철, 서상연
- 재무위원회   위원장            김시영
- 학술위원회   위원장            허대석
- 위원    윤영호, 이근석, 이영숙
- 심재용
- 홍보위원회   위원장            윤덕미
- 위원    양 수, 이창걸, 정미경
- 권인각, 손지현
- 자원봉사위원회   위원장            최화숙
- 위원    문도호, 박철구, 최대호
- 김환근, 최성은, 이경옥
- 간행위원회   위원장            조 현
- 위원    김중연, 박명희, 최필순
- 김현숙, 허정규

**대회의 규모**

본 대회의 규모는 한국을 비롯한 20여 개국에서 약 1,000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을 초청하여 기초강연, 특별 강연,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약 100편의 일반 논문 발표 (Oral 및 Poster Presentations)와 국가별 발표를 통하여 역내 국가들의 호스피스 관련 활동 보고와 연구 보고 등이 발표되고 참가자들 간에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 질 예정이다.

**대회 개최에 따른 기대 효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유일한 국제 호스피스 완화의료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 1) 국제적으로 저명한 초청 학자들의 특강과 심포지엄을 통하여 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 학술 연구 활동을 촉진하고,
- 2) 국내외 단체와 회원들간의 상호 이해증진과,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며,
- 3)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제도적 발전을 촉진 시키고,
- 4) 말기 암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국제적인 추세임을 널리 알려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함으로써,
- 5)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질적 양적 발전과 함께 이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도록 한다.

궁극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호스피스 국제학술대회의 개최 목적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가들 간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발전을 도모하여 이 지역내 말기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에 있다.